

실적에 따라 ‘보너스’ 액수 결정된다

연재기획 등록금 집중 해부 <5>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정책

전체 예산 약 97억... 1년동안 교직원 최대 1550만원
충분한 실적 증명돼야 지급, 기존보다 공정성 높였다

올해 대학회계법이 새롭게 재정됨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가 신설되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까지 전국 국·공립대학에서 교육 및 연구 등을 꾸준히 수행한 교직원이라면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의 명분으로 경비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수입료로 전부 통합됐다. 때문에 재정위원회가 심의하는 대학회계서 교직원들에게 월급, 각종 수당 등 인건비가 지급이 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실적에 따라 보조비를 지급하기 위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수립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교원은 물론 행정직원들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명칭 그대로 교육·연구·학생지도 등 3개의 영역에서 활동 및 성과 계획서에 자신이 직접 작성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교직원들은 영역에 따라 배정비율에 맞게 보조비를 받게 된다. 지급 기준 및 한도액은 △교육

(40%)=620만원 △연구(30%)=465만원 △학생지도(30%)=465만원 등 3개의 영역에서 최대 15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성과계획서를 처음 제출할 때, 대학측은 해당 교직원에게 실적에 따른 금액 중 40%의 해당하는 돈을 우선 지급한다. 최종 보고서와 실제 성과 평가가 시행되면 나머지 60%의 금액을 수여한다. 평가는 이듬해 1월말이나 2월초사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배정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97억7320만원에 해당된다.

재정과 고원복 경리팀장은 “기존에는 급여보조성 경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교직원들에게 큰 무리 없이 지급됐다”며 “새로운 명칭으로 편성됨과 동시에 모든 교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닌 실적으로 판단하는 공정한 금액으로 탈바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학생지도 분야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며 “대학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 그리고 취업 상담을 원하는 학생 등 교직원들이 모두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백승규 기자



“올바른 성범죄 교육은 최고의 호신술이죠” 한 학생이 경관에게 성범죄 예방 차원의 교육을 듣고 있다. 22일 학생회관 앞 한라에서 소공녀 총여학생회(회장 홍은혜 환경공학과 3)주최로 ‘레드라슬데이’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거칠고 색시한 이야기’이며 대학생들이 입 밖으로 내기엔 부끄러운 소재들을 축제 활동으로 진행했다. 또한 성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범죄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백승규 기자

교대, 동맹휴업 및 시위



18일 교육대학 학생들이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교육재정효율화방안과 시간선택제교사 제도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반발해 교육대학 학생들이 지난 18일 동맹휴업을 전개하며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투쟁을 진행한 교육대학은 성명서 발표와 교통과 전 교조의 연대발언, 자유발언 등을 시작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1시부터 시청으로 가두시위를 진행, 시민들에게 현 교육정책 도입의 문제점을 알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 교부금을 산정할 때 학생수 비중을 확대해 교육수요가 큰 지역에 더 많은 재원 배분 △누리고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등 시·도 교육청 재정여건을 압박하는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놔다. 아울러 △스무교 학교 통폐합 △학생수 감소 반영한 교원 증원 축소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 최소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대학은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반대’ 학생투표를 실시해 찬성 264표, 반대 44표, 무효 6표로 총 84.07% 찬성률로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교육대학은 지난해 4월11일에도 정부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동맹휴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교육대학은 “전인교육을 저해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우리대학을 포함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의 반발이 거세자 교육부는 “현직 교원의 1%안에서 1년간 시범운영한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를 통해 폐기·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약속을 어긴 채 부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자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날 교육대학은 △국가시책 누리과정 국가에서 책임 △돈의 논리 포장하는 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폐기 △교육의 질 악화시키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태양(초등교육학과교육전공 3) 교육대학 학생회장은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과 시간선택제교사 등 반 교육적 정책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개선하고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찬우 기자

3년 뒤 새로운 생활관 신축돼... 학생 수용공간 28% 도달할 것

新기숙사 설명회 개최, 수용 인원 900명·숙소 공간 500개 유치

여학생 수용인원 늘릴 것... “남녀 비율 50:50으로 맞추겠다”

3차 기숙사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설명회가 17일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새로운 생활관이 3년 뒤인 2018년에 준공될 계획이다.

예정된 수용인원은 900명이며 운영비는 83억4500만원, 총사업비는 291억5400만원이다. 공사는 2016년 8월 30일 시작으로

2018년 2월 21일 완공된다.

또한 숙소시설은 1인실 100개, 2인실 392개, 장애인(2인실) 8개로 총 500개의 숙소공간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는 총면적 중 65%로 2차 BTL 수용인원보다 5% 늘어난 면적이다. 학교 측은 2차 BTL설립을 진행 중 3차를 계획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학생수

용공간 목표가 25%인데 우리 대학은 현재 16%밖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차 BTL을 완료하면 수용공간이 20%가 되며 3차까지 완료되면 28%에 달한다.

현재 기숙사 수용인원 중 남학생은 1053명, 여학생은 651명으로 여학생 기숙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매학기 기숙사에 지원하는 여학생들은 인원 부족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3차 BTL은 여학생 인원을 늘려 남녀 비율 50:50으로 맞추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업개요 △사업부지 △사업 일정 및 기타 변경사항 △주요 설계 요구사항 △실비 면적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업일정과 평가점수 변경사항에 대해 1차(PQ서류) 질의마감일이 24일로 답변일이 10월 1일로 변경됐다. 또한 평가점수에서 1000점 만점 기준 건설계획 항목이 40점에서 30점으로, 운영계획 항목이 170점에서 180점으로 조정됐다. 공익성 항목은 30점에서 50점으로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는 460점에서 440점으로 변경됐다. 김정희 기자

재정위원회 본격 위촉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재정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이상봉(회계학과) 교수 △부위원장=은수용(의학과) 교수·교수회 부회장 △일반직위원=민기(행정학과) 교수, 홍중현(통역번역대학원) 실무관, 김태성(총무과) 실무관, 원일권(영어영문학과 4) 총

학생회장, 양해찬(국어교육과 3) 사범대 학생회장, 고행선(회계법인 길인) 회계사, 양봉규(현대자동차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이사 △당면직위원=김두철(물리학과) 교수·대학원장, 허철규(환경공학과) 교수·교무처장, 고윤희(수학교육과) 교수·학생처장, 양덕순(행정학과) 교수·기획처장, 이용균(사무국) 사무국장, 강훈(생물산업학부) 교수·산학연구본부장.

백승규 기자

다음 신문은 추석·중간고사 관계로 11월 4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합니다.

풍력발전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2016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특별전형)	면접시험	· 면접고사: 2015. 10. 27.(화) 10:00 ~
모집학과	· 석사과정 : 풍력공학부(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제어 시스템전공, 풍력해양·토목공학전공) 3개 전공 ·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특 전	· 석·박사과정 월 70만원 장학금 지원(Full Time) · 우수 대학원생에게 해외 우수대학 학점교류 비용 지원 (유럽 : 알보그대학(덴마크), 델프트공대(네덜란드), 러프버러대학(영국) / 일본 : 아시카가 공대 등) · 우수 대학원생에게 해외·국내 인턴십 비용 지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전금,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네덜란드 ECN, 독일 Lahmeyer, 영국 Lomax 등) · 국·내외 학술대회참가 및 논문발표 지원
지원 자격	· 전공제한 없음(이공계열·인문사회계열 등) · TOEIC 600점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졸업 후 진로	· 한국남부발전(주), 제주에너지공사,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주), 한국전금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원서접수	· 2015. 10. 12.(월) 10:00 ~ 10. 15.(목) 17: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http://www.uwayapply.com)	선발방법	· 면접(면접 시 영어구술능력을 5분내·외로 평가함)
		문의처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064)754-3991 · 학원 풍력공학부 홈페이지 (http://gwe.jejunu.ac.kr)에서 "예비신입생을 위한 풍력공학부 소개.pdf"를 내려 받아 참조하기 바람. · 각 전공선택에 대한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풍력공학부 행정실 (064)754-4400로 문의 바람.

순진한 신입생 꼬드겨 ‘강매’

해당업체 모르쇠 일관…

학기 초마다 성행하는 어학 인터넷 강의 및 교재의 방문판매에 대한 적절한 제재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에서 파생된 텔레마케팅도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3월,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판매원이 강의실에 입실해 어학 강의와 교재를 홍보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구매 혜택에 혹한 몇몇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나눠 준 신청서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작성했다.

방문판매를 하는 업체는 이 같은 판매가 때마다 이뤄지는 것을 잘 모르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업 전 후로 홍보를 했다. 신입생 대부분이 미성년자임으로 판매자는 재화 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방문판매 신청서를 작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까지 이뤄지는 상황이 빈번히 연출되고 있다. 판매자들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화학공학전공 강모씨는 “그들은 교수님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고, 설명을 마친 후에 신청서를 반강제적으로 학생들에게 나눠줬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교수님은 모르고 계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토익 강의와 교재 구매를 하라는 연락이었다”며 “계속해서 거절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판매원의 태도에 화가 났고 내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게 기분이 나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은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관련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방문판매를 진행한 해당 어학관련 업체는 “학교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정확한 허가처를 묻자 “회사 판매 방침이라 알릴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는 “방문판매를 허가한 적이 없고 요청이 와도 해주지 않는다”며 “순찰을 돌지 않는 이상 마땅한 제재방법은 없으며 학생들이 신고를 할 시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희 기자

일방적인 통보… 수강하는 학생과의 약속 저버렸다

12개 단대 소속 52개 학과, “시간표 변경 안했다”… 그러나 일부 학과 운영 달라 ‘2+1 강의’ 아닌 3연강 사례 속출… 3시간 중 1시간 아예 하지 않는 경우 잇따라

학생들 무작위로 변경된 시간표에 불만 터뜨려, “수강권 뺏는 행위 부당하다”
철학과 이서규 교수, “학생들 수업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간표 배치해야”

수업시간표 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교수와 학과 그리고 학생 간 합의 하에 2+1 교시를 임의로 3교시 연강으로 바꾸는 등의 부당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대신문은 12개 대학, 52개 학과에 임의로 수강신청 시간표를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물었지만 전부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메카트로닉스학과 강좌 <메카트로닉스공학II>는 수강신청 당시 ‘화1 수1 수2’였지만 현재 ‘수1 수2 수3’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 <프로그램II>도 기존에는 ‘월6 월7 화3’에서 ‘월6 월7 월8’로 바뀌었다. 심지어 2+1교시 중 1교시를 아예 수업하지 않는 강의도 있었다.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강좌 <초등수학교육II>는 ‘목8 목9 금8’이었지만 금요일에는 수업하지 않았다.

A씨는 수강신청 후 4교시 연달아 수업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전공수업인 앞 2교시를 3교시로 연강한다는 통보를 받고 뒤

투표를 진행했지만 수강권조자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실정이다.

A씨는 “2+1 교시 인 것은 약간 불편하지만 감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수강신청이 끝난 후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일방적 이다시피 시간표를 바꿔 수강권을 뺏는 행위는 불만을 넘어 부당하다”고 말했다.

학과는 수강신청이 있던 지난 8월 말 전에 모든 학과에 ‘2015학년도 2학기 수업시간표 편성지침’을 공문으로 송부했

교육 질 향상 위한 교양과정개편 공청회

불필요한 시스템 및 과목운영과정 문제 잇따라 지적

전인교양 대개편… 애매한 목적 아닌 실질적 교육 실시

재이수 관련 불만… “학생들 최대한 피해 보지 않을 것”

올해 새롭게 부분개편된 교양교육과정

에 대한 공청회가 23일 오후 2시 사회과학대학중강당에서 개최된다. 기초교양교육원 교양교육센터(센터장 김영표 체육학부 교수)는 우리 대학의 뚜렷한 교양교육 목표가 없어 교육의 지향점이 모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학문

이러 계열기초영역 자유이수과목의 불분명한 목적과 전인교양역역의 일부 교과목은 대학이 추구하는 학문적인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또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부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같이 교양교육 재편성의 필요성을 가진 교육원은 올해 교육과정을 일정부분 변경을 결정했다.

먼저 강좌 글쓰기·외국어·논리적으로

로 이뤄진 학문기초 분야에서 외국어 수업 중 ‘한문 I·II’ 과목이 전인교양 영역으로 이동했다.

인문·사회·이공·예체능·자유이수교과로 나뉜 계열기초 분야에서는 개편된 이후 이공계열과 자유이수교과가 탈락되며 자연과학계열과 공학계열이 새롭게 편성된다. 또한 최소이수학점이 기존에는 10학점에 비해 8학점으로 소폭 줄어든다. 이에 학생들의 전공학과에 맞춰 소속된 계열에서는 해당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하며 교육대학 학생들은 각 계열별 1개 교과목이상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학업동기 강화·의사소통·대학 특성화·인성 및 리더쉽으로 분류된 전인교양 분야는 △1영역:언어와 문학 △2영역:역사와 철학 △3영역:사회와 문화 △4영역:과학과 기술 △5영역:예술과 건강 △6영역:인성과 리더십 등 총 6개의 항목으로 개편된다.

모든 영역의 과목들은 신규로 개설되며 학과당 5개 과목 이하로 편성된다. 이에 교육원은 영역당 20여개 교과목 개설필요성을 제시했다. 오직 본교 전임교수만이 교과목 개설에 대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만약 개설된 교과목이 유사한 성격을 나타낼 시 교수간의 협의를 거쳐 통·폐합할 수 있다. 또한 전인교양에서 이러닝(e-learning) 교양교과목개설은 금지되며, 상황에 따라 정보통신원으로 이관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은 전인교양 6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교육원은 전임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는 비율이 증가해 교육의 질 향상과 예상결과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교양·전공교육을 연계시켜 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과목들이 사라지는 개편안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과목을 재이수하는 데 있어 불합리성이 따를 수 있다며 입을 모았다. 만약 1학년 때 수강했던 과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학점은 자연스레 포기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명주 기초교양교육원 연구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학생들을 위해 편성된 것이므로 절대 피해를 보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승규 기자

취업에 대한 흥미 높이는 효과

학생들 위한 다양한 특강 진행

대학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역량강화 취업캠프’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자연과학대 세미나실 및 서귀포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체육학부(학부장 김미에 체육학부 교수)에서 처음 마련한 이번 캠프는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흥미를 높여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특강이 준비됐다. 캠프에서는 △JDC 양창운 본부장의 ‘JDC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일자리 창출’ △CONRAD SEOUL Health Club 김유련 팀장의 ‘호텔 멤버십 휘트니스 클럽 현황’ △가온누리 구호석 팀장의 ‘스펙을 이기는 성공 취업전략’ △세주유 나이트드 이동남 실장의 ‘스포츠분야 취

업에 대한 흥미 높이는 효과

학생들 위한 다양한 특강 진행

취업에 대한 흥미 높이는 효과

학생들 위한 다양한 특강 진행

취업캠프 개최



지난 17일 자연과학대 세미나실에서 열린 ‘취업역량 강화 취업캠프’에서 학생들이 특강을 청강하고 있다.

업을 위한 준비’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취업캠프를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과 모의면접 경험을 쌓았다”며 “직업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또 “캠프가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캠프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백승규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간 최낙진

편집국장 백승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번호 064)754-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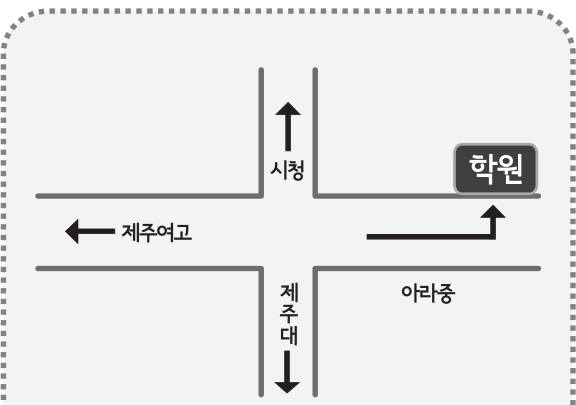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35회 백록학술상 공모

신문방송사에서는 제주대신문 창간 61주년을 맞아 제35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2.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nu.ac.kr로 제출해야 함.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졸업논문 응모가능
※원본 파일은 본인 이름,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
3. 시 상 : 당선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4. 접수마감 : 2015년 11월 20일(금) 18:00까지
5.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 (취업전략본부 3층)
6. 당선발표 : 2015년 신년특집호 (2015년 12월 2일자)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위험천만 캠퍼스’ 휠체어 앉아 그들이 다녔던 길 직접 걸었다

기획취재 허울 뿐인 사랑의 학교 〈完〉 장애학생 하루 체험기

눈 앞에 펼쳐진 비포장도로·높은 인도, 이동 방해 심각
힘들게 경사로 내려왔으나… 불법 주차차량에 좌절

학교에 가기 위해 눈을 뜬 당신. 그런데 다리에 감각이 없다. 아무리 만져 봐도 내 다리 같지 않다. 만약 당신이 하루아침에 다리를 못 쓰게 된다면 어떻게?
본지는 1, 2회 연재를 통해 장애학생센터의 상주직원 부재, 비정상적인 위치를 지적했다. 하지만 센터의 문제로는 그들의 불편함을 완전히 대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제주대에는 44명의 장애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그 중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25명이다. 또한 휠체어를 타고 다닌 학생은 총 4명이다. 3명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으며 1명은 수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자는 수동휠체어를 타고 그들 삶의 일부를 느껴보기로 했다.
◇**대학본부**를 떠나며
기자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됐다. 코스는 대학본부-학생회관-기숙사-인문대학-경상대다. 휠체어를 타본 경험이 적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 본관 3층에 있는 신문사

부터 휠체어를 타기 시작한 기자는 대학본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렸다.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익숙하지 않은 조작법 때문에 방향전환이 어려워 애를 먹었다. 또한 바퀴를 밀어야만 갈 수 있는 수동 휠체어의 특성 탓에 팔이 아파왔다.
기자는 평소 학생회관과 대학본부를 지날 때 차량이 많아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역시나 휠체어를 탈 때도 그 문제점은 나타났다. 차가 너무 많이 다녀 건물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다행히 몇몇 운전자들이 차를 멈춰서 지나갈 수 있었다.
학생회관 입구에 들어서자 울퉁불퉁한 땅들이 기자를 마중했다. 걸어서 지나갈 때는 신중조차 쓰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휠체어에 얹아 보니 지알판이 따로 없었다. 울퉁불퉁한 돌들을 지나갈 때마다 통풍이 뚫 곳곳으로 전해졌다. 결국 오늘 체험에 도움을 줄 동료기자에게 부탁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도로가 평탄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생회관에 들어선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갔다. 그 후 학생회관 후면에 있는 장애인 경사로를 통해 내려왔다. 하지만 경사로 앞에 차가 주차돼 있어 매우 불편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총무과에서 장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그렇게 경사로를 내려오고 기자는 인문대학으로 방향을 돌렸다.
◇**힘난한 인문대학과 기숙사** 가는 길
인문대학으로 가기 위해 아라뮤즈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위치한 라뮤즈카페로 올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 포장되지 않은 도로 인도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인도 턱이 높은 곳이 대부분이었고 갈라진 도로 때문에 바퀴의 진동이 몸 곳곳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숙사 부근 도로에서는 인도 턱이 너무 높아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횡단보도가 있지만 턱이 높아 도로로 내려오지를 못했다. 결국 동료의 도움을 받아 턱이 낮은 곳까지 계속 움직였다. 경사가 심해 도저히 혼자서는 다니지 못했다. 그래서 언덕이나 내리막길은 동료의 도움을 계속 받으며 이동했다.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편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의 턱을 낮출 필요가 있어 보였다.
◇**아직도 그들은 차별** 받고 있다.
인문대학을 지나고 경상대학으로 향했다. 원래는 경상대학 1호관으로 진입한 뒤 2호관을 통해 밖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외교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기자. 하지만 차량 통행이 많아 쉽게 건널 수가 없었다.
▶ 기자가 학생회관 앞 경사로에 멈춰섰다. 더 이상은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경상대학 2층에 도착해 보니 어이없는 상황이 눈앞에 닥쳤다. 1호관과 2호관을 잇는 통로를 장애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통로 앞에는 계단이 있었고 휠체어를 타고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였다. 일반 학생들에게는 1호관과 2호관이라는 의미를 지을 수 있는 통로가 장애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의 상징 같이 보였다. 아직 경상대학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재학생이 없다고 하지만 장



애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었다.
◇**장애체험을** 마치며
기자는 짧지만 2시간 동안 휠체어를 타며 그들의 시선에서 학교를 바라봤다. 학내 구성원들은 휠체어를 탄 기자를 보며 양보도 해주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주는 등의 보기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장애지원센터의 인력, 위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설 및 차별의 문제 등 체험을 통해 다양한 부분을 느꼈기 때문이다.
제주대는 2001년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유일한 사랑의 학교이다. 장애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이 되길 바란다.
김해건 기자

‘16학번 신입생’ 유치 위한 수시 마감돼

제주대 찾은 예비 신입생... 4085명 지원에 경쟁률 5.06:1

초등교육과 경쟁률 작년에 비해 2배 증가, 여전히 강세

지역인재 전형 새롭게 선보여... 합격자 발표 12월 9일

제주대가 15일 2016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807명 모집에 4085명이 지원해 평균 5.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5.03대 1보다 소량의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20명을 모집하는 일반학생전형 초등교육과로 밝혀졌다. 작년 11.35대 1에 비해 416명이 지원한 2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신입학 모집인원 2556명 중 수시 모집 인원이 771명, 30.16%를 차지한데 이어 이번 해는 모집인원 2540명 중 수시모집 인원이 837명, 32.95%를 차지해 수시인원 비중이 2.8%가량 증가했다.
일반전형에서 인문대학의 경우 일어일문학과가 6명 모집에 49명이 지원해 (8.17대 1)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높은 경쟁률을 보인 중어중문학과와 사학과의 경우 경쟁률이 각각 5.14대 1, 4.5대 1로 약세를 보였다.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행정학과가 8.33대 1로 강세를 보였고 경상대학은 여전히 높은 경쟁 속에 관광경영학과(10.25대 1)와 관광개발학과(10.29대 1)가 인기를 구가했다.
사범대학은 지난해보다 더 치열해진 경쟁 속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이 12.5대 1로 그 치열함을 엿볼 수 있었다.
생명자원과학대의 경우 여전히 생물산업학부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해양과학대의 경우 해양생명과학전공이 가장 높은 경쟁률 (9.17대 1)을 선보였다.
자연과학대는 지난해 높은 경쟁률을 구가했던 생활환경복지학부가 5.5대 1로 약세를 보이는 한편 의류학과가 8.57대 1로 강세를 보였다.
공과대학은 지난해와 달리 모든 과의 경쟁률이 증가한 한편 건축공학전공이 11대 1로 나타났다.

간호대학과 수의과학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전형도 변화의 모습이 감지됐다. 일반학생 전형이 지난해 441명에서 392명으로 소폭 줄고 지역인재 전형 신설, 131명을 모집한다. 학생부 교과유형으로 학생부 100%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다. 예체능특기자 전형 중 미술학부의 경우 올해 전형 요소에서 이전의 임상실적 대신 인체소묘를 하는 실기가 도입돼 큰 변화를 보였다.
입학관계자는 “교육부가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을 유도함에 따라 올해 수시모집 비중을 늘리게 됐으며 앞으로도 차차 비중을 늘릴 예정”이라며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지역인재육성법에 따라 제주도내 재학생의 인원을 늘리고자 신설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이 예체능특기자 전형 중 미술학부는 학부에서 학과로 변경되면서 실기를 통해 평가하자는 학과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합격자발표는 수능시험 성적 발표 후인 오는 12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 중 미응시자가 발생한 경우 충원합격자를 선발하며 충원합격자 선발을 위한 예비후보자는 합격자 발표와 함께 이뤄진다.
부찬우 기자

‘관광콘텐츠산업’ 지원 선정된 30개 기업 대상 간담회 열려

향토자원 이용한 기업 육성 목적

사업 절차 설명·애로사항 청취

관광디지털콘텐츠사업 기술사업화지원 사업단(단장 이동철 경영정보학과 교수)은 지난 16일 창업보육센터 회의실에서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30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



지난 16일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관계자들이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듣고 있다.

업에 선정된 패거리를 이뤄냈다.
이 사업은 향토자원을 활용해 제주형 관

광디지털콘텐츠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 주력 산업군으로 선정된 ‘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술사업화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돼 있다.
사업단은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기술 이전 확산 △특허 및 인증 획득 △제품 고급화 △기술경영 컨설팅 △디자인 △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 △상품기획 및 브랜드 연계 △통합 패키지형 △장비활용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사업 절차 설명과 기업의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백승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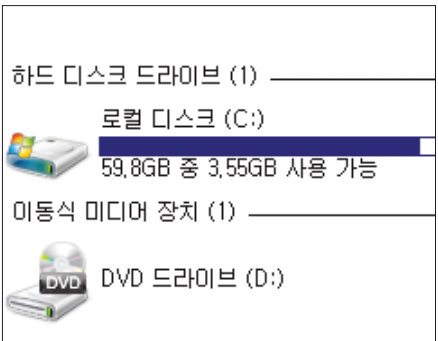
인프라 갖춰지지 않은 수업에 학생들 불만 봇물

빔프로젝터 오작동 빈번히 발생 ... 학생들 수업 시간 계속 빼앗겨

IT수업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용량 턱없이 부족

수업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학생들이 수업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교양동에서는 수업에 필요한 빔프로젝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업에 불편을 느낀 한 학생은 “수업에 필수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 30분 가량 수업을 듣지 못했다”며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양동 측은 “수업 도중 빔프로젝터가 고장났다는 접수가 들어오면 쉬는 시간을 빌려서라도 수리하고 있다”며 “시간이 조금 지체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교내 곳곳에서 공용으로 사용

하는 컴퓨터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통신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IT수업에서도 학생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넉넉하지 않아 수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문선규(철학과 2) 학생은 “디스크 용량 부족 문제로 수업 진도가 많이 늦어졌다”며 “수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파일을 다운 받는 것으로 2주의 수업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원과 인문대학 2호관에 비치된 컴퓨터의 경우 하드디스크 용량이 40GB~60GB로 나타났다. 이 중 기본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이 20GB~55GB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의 양은 5GB~20GB로 부족했다. 이는 경상·사회과학대학, 도서관 등의 전산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



정보통신원 공용컴퓨터는 공학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용량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 수준이다. 각 대학 전산실 컴퓨터의 경우 하드디스크 용량이 평균 200GB가 넘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낮은 하드디스크 용량이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 최근 실시하는 공학 수업이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존 파일의 비율을 줄여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이래 기자

권하고 싶은 책

CODE 2.0

VERSION 2.0

이재

‘코드 2.0’

저자 : 로렌스 레식, 김정오 옮김
출판사 : 나남

「코드 2.0」의 저자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스탠퍼드 로스쿨 교수로, 헌법학과 사이버법학 분야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삶의 변화와 헌법적인 가치들의 위기에 대해 천착한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SNS를 통해 지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은 우리 삶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초기 인터넷이 내포한 자유에 대한 낙관적인 비전은 오늘날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생활의 상실, 검열 필터에 의한 검열, 지적 공유자산의 소멸, 음모론과 같은 어두운 비전들은 자주 ‘환경적 재앙’에 비견된다. 인터넷에는 유용한 많은 정보도 있지만, 스팸과 포르노, 유명인사를 둘러싼 믿을 수 없는 무머들로 가득하다. 아무튼 넷은 더 이상 무한한 기능성의 공간으로만 상상되지는 않는다.
레식은 인터넷 응용 영역의 코드들이 변경되면서 사이버 공간이 어떻게 변화

‘코드 2.0’

저자 : 로렌스 레식, 김정오 옮김
출판사 : 나남

하고 있는지 주의를 촉구한다. 코드는 문화가 전파되어가는 방식을 점차 완벽에 가깝게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매우 높은 통제 비용 때문에 규제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것들이 코드의 출현에 의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코드를 바탕으로 하는 규제는 특히 기술에 대한 문외한인 사람들에게 규제를 보이지 않게 할 위험이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통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경험은 민주주의에 대한 결의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자유를 위협하는 적으로 종종 부패한 정부를 꼽곤 한다. 그러나 정부 이외의 다른 무엇인가가 자유를 위협할 수도 있다.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는 자유의 의미가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동적이다. 가령 우리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흘러고 다니는 ‘쿠키’를 통해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은 이 대목에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레식은 공개코드의 가치를 옹호하고, 프라이버시 맥락에서 개인들에게 선택

부녀의 서로 다른 길

친일파 아버지와 독립운동가 딸

최원순(崔元淳)은 20여년 동안 일제 강점기 고위관료를 지낸 인물이다. 당시 계속해서 승진하려면 일제의 강제성으로만 절대 이를 수 없었다. 개인의 적극적인 자발성이 수반되는 행위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후에도 여타 친일파와 같이 요직에 중용된다. 임신양명을 위한 자발성은 오늘날 그의 이름 석 자를 친일인명사전에 올렸다.

〈편집자주〉

◇최원순과 그의 가족

최원순은 1876년(고종 13)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다. 최원순의 아버지 최달현(崔達鉉)은 명월 만호로 구한말의 무관이다. 명월성지(明月城址)는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와 동명리 일대에 남아 있는 성터이고 왜적을 막는 진지로 활용됐다. 만호는 조선 후기 무관직 벼슬(종 4품)로 과거 명월 진성 주둔군의 사령관이자 행정 책임자였다. 정확한 명칭은 명월진 수군만호로 현재 해군 부대장 정도에 해당한다. 왜군으로부터 조선을 영토 최남단에서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원순은 슬하에 2자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제주농업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최광식(崔光植)이고, 딸은 독립운동가이자 신성여자고등학교의 설립자 최정숙(崔貞淑)이다. 최원순, 그는 왜군에 대항하여 싸우는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고, 독립운동 대통령표창을 받은 딸을 두었다. 위아래로 일본에 대항하는 집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최원순은 친일인명사전에서 두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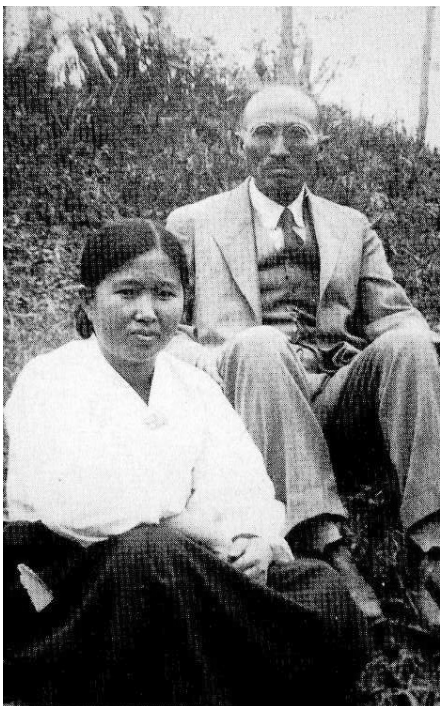
◇승승장구, 화려한 이력

그는 구한말에서 일제를 거쳐 미군정까지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그의 이력은 관아에서 굶은일을 하는 말단관리에서 출발한다. 당시 그는 아버지 최달현을 여의고 집안의 가장이 되어 일자리를 찾는 도중에 아버지의 친구들이 추천해줘 관리 생활을 하게 됐다. 이후 1900년 12월 제주목 주사로 승진하여 제주목과 서울조정을 오가는 문서를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다. 1905년 10월 제주목 재판소 검사시보로 임명됐고 이듬해 11월 정직 검사가 됐다.

1908년 6월 판사로 전관해 광주지방재판소 제주구재판소 판사로 임명받아 경술국치(한일 합병)인 1910년 8월 29일 전후까지 재직했다. 합병 후에는 군수로 임명돼 활동했다. 1912년 3월 고등관 7등의 평안북도 회전군수로 일했다. 회전군수로 근무 중 제주공립소학교에 기구 구입비를 기부해 이듬해 6월 목배를 받았다. 목배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사회에 공헌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하사하는 일종의 상이다. 같은 해 8월 한 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1913년 1월 고등관 6등으로 승급됐다.

1915년 10월 평안북도 창성군수로 자리를 옮겼다. 그 해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6년 8월 평안북도 회전공립보통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한 공로로 목배를 받았다. 일제가 조선을 본격적이고 대대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실시한 토지조사에도 가담해 일했다. 1917년 8월부터 1918년 3월까지 평안북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을 겸임했다. 1918년 7월 종6위에 서위되고, 같은 해 12월 고등관 5등으



아버지 최원순(오른쪽)과 딸 최정숙(왼쪽)

로 승급해 승승장구한다. 이후 1923년 1월 퇴직해 관료의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 때 그의 나이가 46세였다.

일제의 관직에서 물러난 뒤 그는 고향 제주도로 내려가 변호사를 개업했다. 그리고 제주전기주식회사, 제주통운주식회사, 제주상선주식회사, 쇼와운송주식회사, 제주목재주식회사 등 여러 회사에서 고문과 취체역(오늘날의 이사)을 맡는다.

또 정계에도 진출했다. 당시에 최원순 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지 수차례 의원에 선출된다. 전라남도 도평의회원에 2번, 전라남도 제주읍 읍회위원에 3번 당선된다. 광복 후에는 1945년 10월 미군정청에 의해 제 1회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돼 1950년 2월까지 재직했다.

법조계에서 변호사는 물론 검판사에 초대 제주지방법원장, 관·정계로는 군수, 도평

의회원, 면협의회원, 읍회의원 직책에 올랐고, 오늘날 대표이사에 해당되는 여러 단체의 대표취체역과 고문 자리를 꿰찬 그였다.

◇출세욕과 적극적 자발성이 만든 친일

일제강점기에서 고등관 5급까지 고위 관료직에 오른 것만해도 일제에 순응하고 일제에 대한 자발적인 협력으로 충분히 친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고등관에 대해 9개 등급으로 구분해 임명·승진시켰다. 고등관은 천황에게 임면권이 있는 관료로서 1~9등의 관등이 부여되며, 다시 1·2등은 칙임관, 3~9등은 주임관으로 구분됐다.

이 때 일제강점기에 모든 관료는 친일파냐고 할 때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원순은 명백한 친일 행위로 이와 같은 의문이 종식된다. 1937년 10월 사상범의 보호관찰을 맡는 광주보호관찰소의 촉탁 보호사로 임명됐다. 촉탁보호사는 독립운동가들이 출옥후 “사상적 과오를 정산하고 황도정신(皇道精神)을 자각하여 충량한 황국신민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복귀”하도록 회유·전향시키는 역할을 했다.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허튼짓 그만하고 자신처럼 일제 아래서 충성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의 친일 행적은 이 뿐만 아니다. 1941년 9월 일본이 막 전시체제로 전환했을 시기에 조선인들이 전쟁에 협력하고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나가는 행위를 독려하는 기관 흥아보국단(흥보단)과 임전대책협회를 통합해 조선임전보국단을 조직할 때 전라남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흥보단은 1936년 4월 만주에서 창설된 조선인 사상통제기관이다. 재만 조선인의 사상통제 및 독립전열의 사상통제 교란이 주된 역할이다.

대한민국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최원순과 동 년배의 법조인 가인 김병로(街人 金炳魯)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두 인물은 확연히 다른 길을 걸었다. 같은 법조인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하지만 가인은 한양에서 판사로 임용될 때 첫 판결이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얼마나 살게 하는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괴리감을 느낀 그는 곧 바로 판사직을 내던지고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는 삶을 살았다. 대표적인 변호는 일경 1000명과 싸우다 자결한 김상옥 사건이 그 것이다.

◇아버지와 다른 길을 택한 딸

그렇지만 그의 딸 최정숙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어린 시절 일찍이 상경해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거쳐 경성관립

광복70년in제주

<2> 최원순

최원순(崔元淳)

- > 1876년(고종 13) 2월 23일~1954년
- > 전라남도 보성 출생
- > 제주목 주사, 제주구재판소 판·검사, 평안북도 회전·창성 군수
- > 광주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 조선임전보국단 전남 발기인
- > 다이쇼(大王) 천황·쇼와(昭和) 천황 대례기념장 수상
- > 전라남도 도평의회원 2회, 제주읍 읍회의원 3회
- > 제주지방법원 초대 법원장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이후 서울대 사범대학)에 진학했다. 그 시기가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맞물려 있었는데 이때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박희도(朴熙道) 선생과 연계해 만세운동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동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일명 보안법에 위반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기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8개월 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제주에 내려와 계몽운동을 했고 목포와 전주 등지에서 교편을 잡았다. 1931년 전주 사립해성학교 재임 중에 ‘따뜻한 봄바람’, ‘조국의 산하’ 등 민족혼을 일깨우는 노래를 지도한 혐의로 일경에 잡혀가기도 했다.

1937년 5월 35세의 나이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해 의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삼도리 향청에서 소아과 정화위원을 개업해 불우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봉사했다. 광복 후에는 다시 교육에 뛰어들어 신성여자학교 교사로 재임하다 1954년 신성여고 초대 교장을 지냈고 10여년 이상을 신성여중고에서 근무했다. 1964년에는 초대 제주도교육감으로 임명됐다.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은 최정숙은 1977년 별세 후에도 독립유공 훈장을 비롯해 여러 상을 받았다. 지난 5월 15일 최정숙 선생 세미나 좌장을 맡은 김희열(독일학과) 교수는 최정숙 선생의 헌신하는 삶은 하늘을 숭배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가톨릭 정신 ‘경천애인(敬天愛人)’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17살 젊은 나이에 3.1운동을 하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년의 나이에 의학을 배운 것은 모두 일관된 행동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가톨릭 신앙에 기반한 나보다 타인을 위한 사랑하는 강한 신념에 비롯하고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때 수녀까지 되고 싶어했던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사상과 이념을 떠나 인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1964년 3월 제 1대 제주도교육감에 취임할 당시 기념사진. 사진 속에 여성은 최정숙 선생이 유일하다.

살았다.

◇임신양명에 가린 ‘악의 평범성’

두 부녀는 한 핏줄이지만 너무 다른 삶을 살았다. 친일로 임신양명한 아버지, 가톨릭 신념으로 타인을 위한 삶을 산 딸. 아버지 최원순은 어쩌면 한 가장으로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여성이고 유대인이자 독일의 현대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고 설명했다.

2차 대전 중 친나치 프랑스 비시 괴뢰정부의 경찰총국장 르네 부스케(Rene Bousquet)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최원순이 평안북도 군수 재임 중 대례기념장을 받은 것처럼 그도 남부 프랑스 관리에 있을 때 흥수 상황을 잘 대처해 ‘레옹 드네르 훈장(Legion d' Honneur)’을 받았다.

또한 종전 후에 숙청되지 않고 3년 구금당하고 5년간 공민권을 박탈하는 정도로 그쳤다. 르네는 자신이 공무원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고 “변개에 대한 피로감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나치라는 번개의 피해를 오히려 최소화 시켰다고 항변한다. 결국은 생전에 심판받지 못 한 채 살다 노년에 정신이상자에게 암살당한다.

최원순은 독립운동가나 조선 백성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고문하거나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독립운동가 뿐만 일제에 협력하지 않는 누군가가 일경의 손에 잡혀 죽거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압박하게 했을 것이다. 출처·친일인명사전, 20세기 제주인명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한나 아렌트 저, <최정숙>=박재형 저, 팟캐스트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야기> >·<시사통 김중배입니다> 전지민 기자

대.학.생

낮에는 대학생 밤에는 알바생

집중탐구

<2> 알바편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대학생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벗어나 독립 라이프를 즐길 거야’, ‘아르바이트도 하고 내 돈으로 쇼핑 해야지’, ‘차곡차곡 돈 모아서 유럽 여행도 다녀올 거야’ 등 대학 입학 전에 많은 꿈을 꿴왔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등록금, 교재비, 월세에 생활비까지 대학생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곳은 도처에 널려 있다. 어느새 따라 붙는 ‘성인’이라는 꼬리표는 부모에게 함부로 손을 벌릴 수 없는 과중한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그 무게감 너머로 쪼개고 또 쪼개 쓰는 고단한 생활이 찾아온다. ‘등록금 + 기타 비용 = 부담’이라는 공식이 된다. 그런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란 선택이 아닌 어느새 필수이자 삶의 일부가 돼 버렸다.

◇알바하는 대학생? 공부하는 노동자!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750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생활비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월평균 40만9000원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등록금을 제외하고도 교재비, 식비, 교통비 등 부대 비용이 만만치 않다.

“랜히 ‘삼포’에 연애가 포함되는 게 아니다. 학생들에겐 데이터 비용마저 금식거리다. 당장에 할부하루가 급한데 대학에

들어와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받기도 그렇다. 돈을 벌기 위해 알바는 이제 학생들의 필수가 된 것 같다.”

이제는 대다수 학생들이 알바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는 대학생 알바를 제대로 된 직장을 갖기 전 파트타임으로 하는 일시적인 일로 여기며 굳이 따로 떼어 ‘알바’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지금의 알바는 광범위하고 의외로 장시간 노동이며, 그 기간 또 한 대학 4년 또는 전문대 2년에 딱 한정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20대 대부분을 알바로 보내는 이들도 많다. 대학생이 알바를 한다기보다 노동자들이 공부를 한다고 말하는 게 더 알맞은 표현일지도 모른다. 심지어 장시간의 알바로 일에 쫓겨 자유시간이 없는 상황에 계속 노출돼 이른바 ‘타임푸어’로 생활하고 있다.

“어쩔 땐 하루 생활의 대부분이 알바의 연속이예요. 학교를 나와도 공부를 하기 보단 다음 알바를 준비하는 등 알바 생활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알바 시간 때문에 학교 일을 조정하는 것은 다반사예요.”

◇땀의 의미

그렇게 시작한 알바, 그러나 사회의 벽은 만만치 않다. 일을 하는 것에 비해 적게 받는 것 같고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힘든 것이 바로 알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임금체불, 낮은 시급 등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도 한 가득이다.

2014년 한 해 대학 등록금은 평균 660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104개 알바 직종의 시급 평균은 6450원대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연 평균 1024시간, 42.7일을 꼬박 일 해야만 1년 치 등록금을 겨우 스스로 장만할 수 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일 해야 할 시간은 더욱 더 늘 것이다. 물론 이 계산은 알바로 번 급여를 한 톨도 쓰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정님마다 다르지만, 알바생들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솔직히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기 힘들 때도 있다. 아직까진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 그래도 일하면서 생기는 소소한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다.”

대부분 알바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젊은 시절의 고생’을 돈 벌면서 경험하게 해주기도 한다. 알바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사회를 직접 경험해 볼 기회라는 측면에서 용돈벌이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더군다

나 책이 아니라 ‘땀’으로 배우고 있어요. 사람을 접하고 대하는 일이 힘들지만 점점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힘든 일을 미리 경험하고 이겨내는 법을 체득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돈 버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아르바이트한다”

◇알바, 새로운 대학생들만의 문화로

사회적으로 아르바이트가 하나의 직업화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겐 또 다른 대학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제적 이유 외에도 새로운 경험과 만남의 장으로 알바를 찾는 이유가 늘어나다.

“요새는 알바를 대외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을 버는 용도보다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알바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알바가 일종의 또 다른 스펙을 쌓는 경험의 장이자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대학생들이 낮에는 공부하고 주말과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주일을 보내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20대 남녀 대학생 2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1위는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는 아르바이트’(50.6%)로 나타났다. 이는 매장 관리, 서빙 등 20대들이 해마다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직종들과 직결돼 있다.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알바 상위권에는 카페와 음식점, 영화관 등 서비스 업종이 주로 포진했다. 직종 선택에 있어서 높은 급여도 중요하지만 재미와 경험에도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재미와 색다른 경험으로 학생들의 눈길을 끄는 이색알바로 속속 등장했다. 대표적인 이색알바는 바로 민속촌 알바다. 아무데서나 자고 배고프면 구걸하면서 관광객

이 주는 부수입까지 올릴 수 있는 ‘거지알바’는 최고의 아르바이트라는 평가를 받으며 대학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참가자가 몰려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드라마 엑스트라 알바, 애완동물을 대신 맡아주는 캣시터,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는 재능거래 등 이전에는 구경하기 힘들었던 이색적인 알바들이 학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알바생들을 위한 노조도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알바에 웃고 우는 학생들, 그들이 알바를 통해 그려가는 대학 생활과 그 독특한 문화, 어느새 학생들의 삶 깊숙이 파고든 알바가 이제는 학생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것 같다.

부찬우 기자

답론通

외교통: 중국·미국사이에 놓인 한국외교, 해결법은?

답론통지기 <4> 김진호 정치외교학과 교수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전승절 행사가 진행됐다. 이 행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중국의 과거에 대해 말하겠다. 중국은 과거 제국주의 세력들에게 자존심이 짓밟혔던 적이 있었다.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국공내전도 치렀다. 결국 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의 모택동이 1949년 지금의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하게 됐다. 그러면서 중국내에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적인 개방은 80년대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선택하게 됐다.

시간이 흐르고 중국의 경제역량은 상당할 정도로 발전했다. 21세기 들어서는 경제 2위의 규모로 성립되다보니 중국인민들의 자부심도 고양된 상태다.

이런 전승절의 특징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성장한 자신들의 위치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있지만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에 버금간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21세기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미국은 앞으로 서유럽 국가나 다른 국가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 강화해서 세계질서를 자신들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중국이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패권국가라는 것을 알렸다는 말인가?

그렇다. 명실공히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시킨 것이다. 이제까지 언론에서는 “경제적으로는 G2국가이나 정치적·군사적으로 그러냐?”라고 의심을 했었다.

하지만 전승절에 북경으로 인사들을 초청해서 그런 점들에 대한 언론의 의심을 잠재웠다. 아직 형성되지 않은 21세기라는 세계의 판에 중국이라는 변수를 갖다 뒀으로 인해서 ‘21세기 판은 중국이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러모로 대단한 의미를 가진 행사라고 생각한다.

◇한·미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측에서는 상당히 절고깝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속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이해한다는 애써 관망한다는 표현을 했다. 외교 용어로 ‘주권국가의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이고, 하지만 그 말은 속으로는 불편하다는 얘기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 한·미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 해야하지만 이

제는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모색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에 대한 재량권이 넓어지게 됐다. 그동안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국가와 외교를 했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반쪽외교가 되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주의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교선택지가 넓어졌다. 좀 더 발전하면 러시아와의 관계도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외교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21세기는 세계질서에 대한 판이 아직 정해져있지 않았다. 우리가 주도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역량을 넓혔다는 점에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홀로서기 전략, 협력과 통합의 질서 구축 등 앞으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는데?

우선 주권국가로서 지향해야 할 선택지는 홀로서기 전략과 협력과 통합의 질서 구축이다. 하지만 이는 차후에 생각해야 할 문제다. 지금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안미경중의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서히 우리의 자주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번 전승절 행사로 인해 친중쪽 사람들은 급격한 변화를 이루려하지만 이는 외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우리에게 금리 인상 등 경제적인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미국과의 동맹국이면서 AIBB의 가입, 사드 배치를 꺼려하는 등 불만을 살 수 있는 행동을 많이 했다. 앞으로 사드배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가?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미사일과 현금 문치를 말로 내세워 한국 지도 위에서 땀먹기 하듯 게임하는 장면을 만평으로 실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틀 안에서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 실리와 명분을 추구해야”

“전승절 참가는 외교적으로 참 잘한 일”

한국은 기존의 외교양태로는 할 수 없었던 AIBB의 가입,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여 등을 결단했고 실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을 달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럼 미국 측에서는 신뢰의 증거를 요구하겠죠. 그것이 바로 사드의 배치문제다.

사드는 한국과 미국사이에서 가장 민감하고 최우선시 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은 2년 동안 사드배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조만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에 최종결단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관리하는 미사일방어체계에는 들어가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사드를 우리 국토에 배치하게 되면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 반도에서 미사일을 쏘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한국이 전장의 도가니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사드배치는 위험하니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한국형 미사일체계를 하겠다고 설득하는 중이다.

한국에서 어떠한 선택지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가 앞으로의 한미간의 외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

◇한국에서 내세울 수 있는 선택지에는 어떤 것이 있나?

방안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며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처럼 자신들의 국토 안에 미사일을 배치하기를 원하는 상황이기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한미동맹을 지주하면서 한중전략적 협력의 틀을 넓힐 방법이 있는가?

물론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



한국 외교의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 편중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상은 과거와는 많이 다른 상황이다. 100여년 전에는 약소국의 위치였으나 현재는 중견국가 이상이다. 중견국가의 특징은 힘을 가질 수 있고 국제관계에서 중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조정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동북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인권문제, 역사문제 등 분명히 한국이 틈새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안미경중인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놓인 한국외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외교라는 것이 반드시 국가 밖의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 내부의 문제이면서 국가 밖의 문제인 것이 오늘날 외교의 특징이다. 과거에는 내정과 외교가 분리돼 있었지만 지금은 내정과 외교는 반드시 같이 가야하는 문제이다.

중견국가로서 외교의 역량을 발휘하기 전 첫 번째로 한국사회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즉 국민분열을 경계해야 한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된 시민사회가 정착이 돼야 한다. 소득면이나 경제규모 등 경제적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분명 선진국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네덜란드나 덴마크 등의 국가보다 국민들이 선진 의식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

둘째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된 외교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그러면서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내실을 가져야 한다. 외교에만 신경쓰다보면 국가안보에 대해 도외시하게 된다.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을 보면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처럼 보이지만 국방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안보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장기적인 맥락에서 외교를 봐야한다. 한쪽으로 틀어진 외교가 아닌 인내력을 가지면서 외교적인 행보를 밟아 나가야 한다.

다섯째 위 네 가지가 다되더라도 북한문제가 타지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변수이면서 외부변수인 북한 문제를 인내력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가 혁신적으로 개선된다면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균형외교의 공간도 넓어지는가?

좋은 지적이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의 관계도 넓어지게 된다. 남북한 간의 관계가 진전이 되고 통일의 조짐이 보이면 한미동맹관계에서 변화가 감지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때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주한미군을 바로 없애면 안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전쟁역지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씩 관리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남북한의 관계가 진전이 되고 과거보다 유리한 국면으로 조성될 때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지혜와 재치가 필요하다. 즉 실리와 명분을 추구하며 균형된 외교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을 지주로 하면서 변화된 안미경중 체계에 대해서 당분간 유지·존속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외교역량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김해건 기자

21세기 총성 없는 전쟁통... 한국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



양혜진
미래정치경제연구원
부원장

필자가 보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타임머신을 타고 19세기 말 구미 열강들의 각축전을 보고 있는 듯하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연유로 강대국들의 부침속에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의 한국은 아시아 및 세계의 ‘중심추로써 역할’을 해야하며 한반도 주변국들과는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경제대국으로의 힘을 키워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는 하나다 라고 외치지만 국가 대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는 실체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주변국가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국은 한국을 ‘혈맹관계’로 본다. 얼핏 들으면 ‘혈맹’은 유교문화권인 우리로서는 더욱 친근감이 느껴지고 가족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혈연 속’에 ‘수직적인 서열’을 내포하고 있음은 아직도 왕조 시대의 속국 내지는 변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 탓이 아닐런지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미국은 한국을 ‘우방관계’로 본다. ‘우방’은 ‘수평적’이며 평등한 민주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친구관계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천적이고 가변적이며 서로의 이해와 상황에 따라 등을 돌리는 ‘배신’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국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오늘의 적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한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한다.

지금의 한반도와 국제정세는 자국들만의 생존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 중임을 인식해야한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인 칠레-페루-멕시코-미국-캐나다-일본-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호주-뉴질랜드를 잇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및 TTPI(범대서양무역 투자동반자협정) 전략에 맞불을 놓으며 글로벌 신경경제구상인 ‘일대일로’ 정책을 주창하며 경제적 대국으로의 야망을 드러냈다.

즉, ‘일대’는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 때 제안한 것으로 중국시안에서 이란-터키-모스크바-로데르담-베네치아를 잇

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하며 ‘일로’는 10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제안한 것으로 중국 푸저우에서 하노이-자카르타-콜롬보-콜카타-나이로비-그리스-이탈리아를 잇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본과는 남중국해 센카쿠(다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싸고 겉으로는 영토분쟁을 하고 있으나 그 속내는 사실상 다른 데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중국해에는 77억 배럴의 석유와 280억 배럴 등 풍부한 지하자원 때문에 주변국가 간에는 지하자원을 선점하려는 물밑 경제 전쟁이며 남중국해에 대하여 소극적(방어적) 관점에서 적극적(공격적)관점으로 방향을 선회한 중국과 Pivot to Asia(아시아 중시)관점의 미국 간에는 군사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주도한 AIBB(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설립과 미국의 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계획 등도 결코 위의 여러 전략들과 무관하지 않다. 위와 같이 중국은 동북공정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정책 및 AIBB설립 주도 등 역사 정치 경제 등에 관하여 미국과 대등한 위치를 세우면서 일취월장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중국은 도광양화와 화평굴

기의 조용한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시진핑 정부 출범 후 지난해 3월 프랑스방문 중 ‘중국이라는 사자는 이미 깨어났다’라고 하며 신지도부의 대국굴기로의 대외정책 전환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는 이번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보여준 군사굴기는 세계에서 미국과의 대등한 지위와 아시아에서의 맹주인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본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등에 편승한 일본은 최근에 아베 정부를 재선임함으로써 자국보호라는 가면을 쓰고 수정주의 역사관으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으며 평화헌법 수정으로 전범국가의 탈을 벗고 있다. 한반도를 세계의 ‘중심추’로 보는 이유는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써 ‘통일한국’ 이후의 한반도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통일이전의 한국은 대북 관계에서는 중국을 지렛대로 하여야하며 대일관계에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수위조절로 일본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안보법 통과하는 향후 한

반도의 정치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는 미국과 공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친중교북적이다. 대중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통일 이후의 경제대국으로 서 한국과 정치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중국과는 밀월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안마다 ‘전략적’이고 ‘능동적’이며 때로는 ‘전향적’인 선택과 집중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통일을 위하여 정치적 후견국인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움직이고 남북한 경제와 문화 영역의 민간 교류는 북한 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그 외연을 넓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미원일이다. 미국과는 불가분의 동맹국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경제 및 국방·안보 등에서 종래에 일방적으로 미국의 우산 그늘 속에서 보호받는 한국이 아니라 이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정책별로 주도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대일관계에서는 한국이 경제대국으로서 우위를 점할 때까지 불가근하고 불가원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일관계가 신밀월중에는 중·일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안별 수위조절 등 한국의 전략적인 외교술이 더욱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은 여당대로 제20대 총선의 주도권을 쥐기 위하여 계파간의 물 밑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야당 또한 중앙위의 혁신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한쪽 계

파의 박수으로써 의결하는 과정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 (과정)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결과’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지 과묵한 필자는 알 수가 없다.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만장일치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대표로서 리더십이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파이에만 집중하다보니 눈이 멀었는지 논리가 공색하기 짝이 없고 그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선택한 자기검과 씩씩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19세기 열강들이 군사력을 앞세워 ‘힘’ (군사력)으로 패권을 잡으려고 했다면 21세기 강국들은 경제력을 앞세운 ‘錢’ (경제력)으로 패권을 거머쥐려고 한다. 21세기 동북아 주도권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을 노리는 중국과 이에 편승한 일본 그리고 기존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미국 등으로 숨가쁜 외교 전쟁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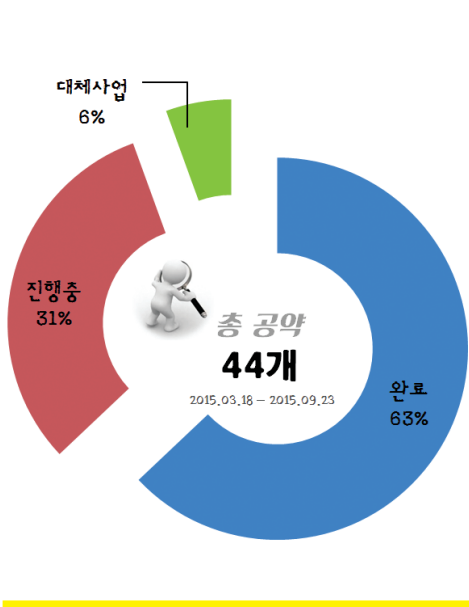
이러한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길은 오직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그 길만이 한반도를 그들의 ‘속국’으로 보려는 전 근대적인 사고의 틀을 지닌 자들과 정신 나간 아베 정부와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한방에 잠재울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한다.

주변 열강들의 총성없는 전쟁이 한창인 이때, 우리는 경제대국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골든타임이다.

>> ‘So아라’ 총학생회 상반기 평가

대동제 예산 무려 3000만원 절약

각 단체 계단식 강의실 도입과 기숙사 연장 개방 등은 현재진행형...



‘So아라’ 상반기 공약 이행률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났다. 조금은 차디 찬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온다. 올해의 반을 마무리하고 남은 2015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학생들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펴기 시작한다. 후반전을 알리는 개강을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간다. 제주대 곳곳에서 노란색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일에 몰두하고 있다. 바로 우리 대학 총학생회 ‘So아라’ 구성원들이다. 지난 8월 ‘So아라’ 총학생회는 정기 총운영위원회를 열어 상반기에 집행된 예산 내역과 하반기에 이뤄질 사업 계획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회의 자료 및 작년 총학생회가 내 걸었던 공약들을 바탕으로 현재 이뤄지거나 예정된 정책들을 본격 분석했다. 또한 총회라는 공공적인 명분 때문에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고자 원일권 (영어영문학과 4) 총학생회장을 만났다.

▶입기의 전반전을 끝냈다. 한 학기동안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힘들과 회의이 함께 공존했다. 일반 명의 학생들 의견을 듣고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여간 쓰이는 것이 아니다. 학과 회장과 단과대학 회장으로 역임했지만 총학생회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방대한 조직이다. 어느 정도의 독선과 자신감으로 밀고 나갔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절차와 회의 그리고 협상의 연속이다. 예를 들어, 어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중앙운영위와 총운영위원회 등 타 조직이 반대한다면 그들을 설득해야 수립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 일종의 정치다. 그러나 ‘So아라’ 혼자만이 아닌 학생 모두의 의견이 담긴 정책이 이뤄질 때, 그 순간 받는 감동과 희열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지난 대동제에 대한 호평들이 쏟아져 나왔다. 축제에서 중점적으로 부각된 장점은?

1년 내내 정성들여 가꾸지던 잔디가 축제 때마다 짓밟혔다.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됐던 대동

제가 우리로 인해 대운동장으로 이주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치 이동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 싶다. 또한 대동제 때 예상된 집행 금액은 2억20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 사용된 돈은 약 1억8000만원이다. 스케일도 과거에 열렸던 축제 이상으로 컸다고 자부한다. 잔디 파손을 막고 예산을 절약하며 다양함까지 구비했던 대동제가 ‘So아라’ 의 큰 자랑이었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쉽지 않거나 실현됐지만 애매한 공약은?

‘버스 노선 신설’ 공약이 가장 애매하다. 아무래도 학생대표로서 원희룡 도지사와의 만남이 자주 있다 보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버스 노선과 관련해 건의를 했다. 이에 따라 도내 교통체계 개선팀과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결국 구제주 인제 지역을 통과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상대 측에서 조건 하나를 제시했다. 현재 구비돼 있는 버스 노선을 모두 백지화 시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더욱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2017년부터 총학생회가 제시한 기획과 함께 노선이 일괄적으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우리는 약속을 받아내 공약 이행을 하긴 했지만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으니 애매한 판단 밖에 서지 않는다.

‘각 단체 계단식 강의실 도입’ 공약도 진전은 되고 있으나 완벽한 이행이 쉽지 않다. 계단식 강의실 설치에 대해 각 단체 행정실 직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혀 서로 난감한 상황이다. 각 단과대학에서 매년 지출되는 금액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강의실 도입을 위한 적지 않은 돈도 선불리 집행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행정실 그리고 소속 학생들이 심시일 반 돈을 모아 진행하기 위해 내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장 관심을 보이는 단체 학생회는 사회과학대학 ‘청춘’이다. 끝까지 노력해보겠다.

‘기숙사 2사까지 연장 개방’ 공약도 생활관 보안 및 관선 안전 문제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생활관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 기획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 또한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

▶‘총장 업무 추진비’ 사건 이후 대학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 학교가 크게 들쭉인 후, 이와 관련해 학교측의 보고를 3번이나 받았다. 첫 번째 보고에서 먼저 사과를 받고 일부 사실에 대한 해명을 들었다. 두 번째 보고에서 학생들이 업무 추진비 공개에 관한 개선 의견을 전달 했으며 긍정적인 답신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 보고에서는 학교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개선안을 발표했으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렸다. 지금도 우



So아라 원일권 (영어영문학과 4) 총학생회장 (왼쪽), 현지훈 (에너지공학과 3) 부총학생회장 (오른쪽).

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업무 추진비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두 달에 한번 정보 공개가 이뤄졌었던 과거와는 달리 한 달에 한번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항목이 전부 나타나있다. 또한 추진비 사용에 대한 영수증도 직접 받을 수 있다.

▶장애센터 전담 직원 부재, 일부 건물 승강기 미설치 등 장애 학우들에 대한 대학 측의 배려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지난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총장과 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때 학생들이 장애인센터의 전담직원 부재에 관해 지적하자 총장은 직원 배치에 대한 약속을 했다. 그렇게 안심한 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제주대신문의 기획 기사를 읽고 ‘아차’ 했다. 물론 총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직원이 임용될 것이라고 말은 했으나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겠다. 정식으로 건의할 것이며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꼭 마련하겠다.

▶국립대 회계법으로 인해 새롭게 제정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딱히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작년까지 학교는 기성회화계에서 급여보조성 경비로 교직원들에게 지급해왔다. 다만, 이번에 재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교내 예산은 100% 심의함과 동시에 숨어있던 돈들이 하나 둘씩 내막을 드러낸 것이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도 용어 자체는 이번에 창조된 것이나 계속해서 지금은 해왔던 것이다. 교내 예산 중 97억원이 배정돼 있어 쉽게 넘어가진 안되는 돈이다. 이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목의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일명 ‘재정 캠페인’을 주창하고 있다. 아직 캠페인 이름도 가제지만 우리가 내는 등록금이 지출되는 경로들을 홍보하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다. 무명 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완성이 됐다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압박을 받을 차례가 왔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

▶대동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만큼 ‘아라체전’에 대한 기대도 크다. 과거 아라체전과 무엇이 다르며 기대할 점은?

각 단과대 학생회장·부회장으로 이뤄진 중앙운영위원회와 체육국장, 그리고 So아라 총

학생회 학생·부회장과 체육국장이 함께 ‘아라체전준비운영위원회’를 결성했다. 제2의 대동제라고 할 수 있는 아라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대회 규칙부터 모두 통일시키고 있으며 예선 경기 대진표도 치밀하게 구성하고 있다. 학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세한 항목들까지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달라.

▶하반기 사업 일정 중 ‘연말 봉사활동’이 눈에 띈다. 정확히 무엇인가?

제주대, 한라대, 제주국제대, 제주관광대 등 도내 4개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이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잦은 만남으로 친해져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한명이 “봉사활동 한번 다 같이 가봅시다”라고 제안을 했다. 그 당시엔 우스갯소리로 넘겼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각 대학의 특성화된 전공을 반영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면, 매우 뜻 깊은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반드시 추진해보겠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 이뤄지지 않는다면 So아라 총학생회만이 라도 봉사활동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제대사랑 기쁨나눔 장학금’의 모금 금액은 얼마나 모였는가?

쾌척된 금액은 학생복지과에서 학생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혹은 총학생회에게 문의를 해주신다면 그 즉시 알려드리겠다. 지난번에 정책과 관련해 복지과를 방문했을 때, 과장님이 학생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했으므로 금액은 적게 모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학생회에서 교내 학생 참여보다 교외의 많은 사람들의 기부를 유치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의 돈보다 외부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매번 교외 인사들을 만날 때, ARS장학금을 위한 다이얼을 한 번씩 눌러달라고 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출범식 인터뷰 진행할 때도 말했지만, 항상 전력투구 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만 학우들이 저희 ‘So아라’에게 관심을 조금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물론 SNS와 면대면 만남을 통해 많은 격려를 해주고 있지만 저희는 학생들의 의견과 관심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엄지불구하고 부탁을 드린다.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 달라. 백승규 기자

2015년도 상반기 So아라 총학생회

공약 이행표

- | | |
|---------------------------------|---|
| 1. 평의회 발원권 확대 및 의결권 획득 | ○ |
| 2. 선거운동본부 운영 자금 및 학생회 운영자금 공개 | ○ |
| 3. 기성회비 반환소송 과정 공개 | ○ |
| 4. 각 단체 계단식 강의실 도입 | △ |
| 5. 정문 식당가 도로정비 | ○ |
| 6. 대운동장-한라터 연결계단 | ○ |
| 7. LED시계 설치 | ○ |
| 8. 도서관 급속충전기, 공기청정기, 방음벽 설치 | □ |
| 9. 도서관납기 | △ |
| 10. 무인복사카드발급기 | □ |
| 11. 제2도서관 방음벽 설치 | □ |
| 12. 자전거 거치대 및 펌프설치 | △ |
| 13. 해대 4호관 공대 4호관 연결계단 | △ |
| 14. 한라터 평탄화 | △ |
| 15. 한라 카페테리아 옆 대형거울 가림막 설치 | △ |
| 16. 산천단 도로정비 | ○ |
| 17. 후문 원룸정보 | ○ |
| 18. 시GO, 적립하GO, 지원반자 GO GO | ○ |
| 19. 표지판 바로잡기 | ○ |
| 20. 학교길 이름 짓기 | △ |
| 21. 걸어보소So & So smart한 영화가 있는 날 | △ |
| 22. 금연 스티커 부착 운동 | ○ |
| 23.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보호 대책 마련 | ○ |
| 24. 기숙사 통금시간 연장 | △ |
| 25. 버스 노선 신설 및 심야버스 확대 운행 | △ |
| 26. 빈 강의실 개방 | △ |
| 27. 학교발전기금 학생들 장학 유치 | ○ |
| 28. 학내 PC개선 | △ |
| 29. So나무술 운영 | ○ |
| 30. 안전 불감증 해소 | ○ |
| 31. 정원만들기 | △ |
| 32. 순환버스 모니터링 | ○ |
| 33. 4·3 평화 문화제 | ○ |
| 34. 우리 손으로 만드는 취업박람회 | △ |
| 35. 안내게시판 활성화 | ○ |
| 36. 주간치 비치 등을 통한 취업, 문화정보 공유 | ○ |
| 37. 강의계획서 기재 | ○ |
| 38. 모의토의 신청료 지원 | ○ |
| 39. 필수고양 이력서강의 개설 | △ |
| 40. Report 반환 | △ |
| 41. 아라대동제 IN 대운동장 | ○ |
| 42. 대행업체 없는 축제 | ○ |
| 43. Take out 시설의 카페테리아 설치 | △ |
| 44. 일자리 제공 | ○ |

- 완료(○) : 24개
- 진행중(△) : 17개
- 대체사업(□) : 3개
- 추진실패(X) : 0개

>> ‘소공녀’ 총여학생회 상반기 평가

전력 쏟아 부운 ‘레드파라솔데이’ 성공적 마무리

홈페이지 정보 부재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학생들의 질책과 비판, 계속된 관심을 바란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여학우들, 소공녀. 이제 막 ‘레드파라솔데이’를 끝마치고 잠시 숨고르기와 함께 다시금 앞으로의 계획을 다 잡고 있는 그녀들. 지난 학기 그녀들이 만들어간 총여학생회와 남은 임기 동안 그녀들이 만들어갈 이야기를 들어보자.

▶공약에 대해 전반적 평가를 한다면?

1학기에 미처 다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을 보여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에 2학기 레드파라솔데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기존의 총여학생회 축제보다 규모도 더 크고 토크 콘서트, 야외 시네마, 레크레이션, 다양한 부스 운영 등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교육적이고 진지한 쪽보단 성을 좀 더 유쾌하게 풀어내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했다. ‘너무 아한 것이 아니냐. 선정적이지 않느냐’ 등의 얘기가 많았다. 수많은 회의 끝에 부스 운영을 준비,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를 시작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걱정이 있었다. 부스 운영을 하기도 전에 절반의 현수막을 회수했고 교수님과 학생들의 문의가 끊어질 않았다. 학생들의 우려가 큰 만큼 더 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다.

선거 운동 당시 내세웠던 얘기가 학생들이 가장 친근하고 가장 거리낌 없이 다

가울 수 있어야 되는 곳이 학생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 가까워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싶어 진행한 사업이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우먼스데이이다. 매달 새로운 곳과 그 달에 어울리는 테마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다. 소통과 공감을 중요시하는 저희 슬로건과도 가장 잘맞는 사업이라 생각해 가장 좋았던 사업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좋은 행사를 찾아서 더욱 새롭고 재밌는 행사로 찾아뵙겠다.

‘제대, 제대로 걸어요’를 11월에 준비하고 있다. 이미 사슴 동상 근처 벤치 보수는 마무리한 상태다. 경성대에서 간호대 사이 테마 거리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유동 인구가 적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장소를 모색했다. 중도에서 새로 공사를 진행 중인데 유동인구가 많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임에도 공사로 인해 외관상의 문제와 학생들의 요청도 들어와 벽화 미화를 진행해 예정이다. 인대 길은 예정대로 11월에 보수가 진행된다.

▶임기 기간 중 아쉬웠던 점은?

제일 아쉬운 정책은 ‘Campus Helper’다. 대학생이 대학에 들어온 목적의 대부분이 아마 취업일 것이다. 대부분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탐방이나 1:1 상담프로그램, 면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홍보가 원활하지 못했던 탓인지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물론 다른 사업 보단 흥미 요소 자체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정말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학생들의 참여가 적어 많은 학생들이 효과를 보지 못해 아쉬움을 느낀다.

홈페이지 정보 부재는 저희가 정보통신원과 얘기를 나눴는데 정보 게재가 늦어지고 있다. 이번 축제가 끝나면 한꺼번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한다. 일단 정보 게재가 늦어진 것에 대해 저희도 반성하고 있고 좀 더 부지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이런 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소통과 공감, 지금까지의 성과는?

시험기간 회장단이 직접 배달하는 특별 간식 사업이 있었다. 치킨, 빨간집 등을 배달했었는데 모두 학생들이 우먼스데이에서 투표를 통해 골랐던 간식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메뉴를 선정하고 학생들의 사연을 받아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정해 간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했었다.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



소공녀 홍은혜(전자공학과 4)총여학생회장(왼쪽), 김수윤(환경공학과 3) 총여학생부회장(오른쪽).

다. 이번 레드파라솔데이에서는 굿데이 토크 부스를 운영했다. 우먼스데이를 통해 어떤 부스가 운영되면 좋을지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을 이번 축제때 부스로 운영했다. 우먼스데이가 학생들의 의견을 저희의 정책에 반영하기에 좋다고 보고 이를 이용해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이번에 소공녀 매뉴얼이 나오게 돼 각 단체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줄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단대별 학생들의 정책에 의견 등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여러 장치를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여성의 권익은 어느 정도 향상됐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총여학생회가 존재했다고 보면 지금은 남학우와 여학우 간의 차이를 서로 간

의 이해를 통해 좀더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총여학생회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레드파라솔데이가 이번 총여학생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총여학생회 축제에서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고 학생들도 잘 이해했으면 한다. 레드파라솔데이가 끝이 나고 ‘제대, 제대로 걸어요’마저 마무리 되면 ‘우먼스데이’와 ‘Campus Helper’만 남는다. 그 동안 일부 행사에 선정적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려와 걱정도 많았지만 그만큼 관심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학우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피드백으로 그 동안 사업들을 잘 해나갈 수 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임기 기간 동안 남은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할 예정이니 학우분들도 총여학생회에 질책과 비판뿐만 아니라 계속된 관심을 가진 채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 부찬우 기자

2015년도 상반기 소공녀 총여학생회

공약 이행표

- | | |
|---------------------------|---|
| <공약이행> | |
| 1. 레드파라솔데이 | ○ |
| 2. Campus Helper | △ |
| 3. Woo! Month Day (우먼스데이) | △ |
| 4. 제대, 제대로(路)걸어요 | △ |
| 5. 대운동장 벽화 봉사활동 | ○ |
| 6. 파우더룸 커튼 설치 | ○ |
| 7. 시험기간 간식 업그레이드 | ○ |

- | | |
|------------|---|
| <기존사업> | |
| 위안부팔찌 제작 | ○ |
| 지공경부암 예방접종 | ○ |
| 택배대리수령 | ○ |
| 프린팅 무제한 | ○ |
| 시험기간 물품 대여 | ○ |

- 완료(○) : 9개
- 진행중(△) : 3개
- 추진실패(X) : 0개

교수시론



이명곤
철학과 교수

“

지역사회와 국가의
공동선을 위해
대학이 보다 교양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한국사회와 대학의 교양교육

요즘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취해진 조치일 것이다. 본디 사회적 문제는 오랫동안 쌓여서 굳어진 것들이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없을 것이다. 가능성 있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하는 방법이다. 이미 오랫동안 습관이 굳어져 본성과 때버린 어른에게 교육을 통해 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구조를 그대로 둔 채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인성이나 인격을 형성할 교육을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다름없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그나마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대학에서 교양강의를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하나는 대학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양을 쌓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공에 잘 진입하기 위한 기초학문을 쌓는 것이다. 미래의 행복한 사회를 위해 보다 힘써야 할 것은 전자일 것이다. 그런데 교양이란 무엇인가? 한자로 ‘敦養’이란 ‘교육하여 기른다’는 뜻이다. 영어나 불어에서는 공히 ‘Culture’인데, 이

는 원래 농부들이 논밭을 경작한다는 의미인 라틴어의 ‘Cultus’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교양교육이란, 거칠고 무질서하며, 동물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원초적인 실존을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다듬어지고, 질서 있고, 지성적이고 정의로운 존재’로 형성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교양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땅이 척박하면 싹을 낼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아무리 전공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올바른 인성이나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전공지식을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교양강좌 혹은 훌륭한 교양교육을 위해서 요청되는 요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강의자들을 확보하는 일이며, 둘째는 제대로 된 교양교재를 선택하는 일이며, 셋째는 교양강좌가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시설여건일 것이다. 교양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과 인격을 기

르는 것이기에 훌륭한 인격을 갖춘 강의자가 필요하다. 이는 교양강의를 담당할 강의자의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 즉 ‘공동선(公同善)’을 위한 의지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교양이란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한 강의자가 모두 강의를 해야 하기에 아무리 전문분야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교재가 없다면 교양강좌의 내용들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가 없기에 좋은 교재의 필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교양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기르고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반 시설여건도 매우 중요하다. 교양교육이 잘 이뤄지는 대학은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선도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 되겠지만, 만일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학은 단순히 취업을 위해 거쳐 가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렇기에 교양교육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엄격하고, 훌륭한 교양교육이 이뤄지도록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함께 노력하는 것은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역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자체 곧 지역사회와 국가의 ‘공동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

‘거점국립대 혁신지원사업’에 거는 기대

제주대를 포함한 10개 거점국립대가 신청한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가 이르면 이달말에 있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5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시행계획’에 따라 거점국립대에 모두 8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은 국립대의 역할 및 기능 정립과 대학운영체제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탈락한 대학은 대학혁신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대학 교육지원사업 치고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교육부의 평가 선정 결과는 곧 다른 국가지원사업의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만큼 학교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2015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제주대는 B등급(2017년도 정원 4% 감축 권고)을 받아 나름 선망했다는 의견이 많다. 다른 지역거점대학인 강원대가 D등급, 충남대, 경북대, 안동대 등이 낮은 C등급을 받았다. 하위로 켜진 대학은 정원을 10%까지 줄이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각종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제한되며 학생들에게도 학자금 용자와 국가장학금 신청까지 못하도록 가혹한 철폐가 가해진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국가적 과제임에는 분명하다. 2018년부터는 대학입학 학생인구가 현재의 대입 정원보다 적어진다. 2023년부터는 학생인구가 40만명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대학의 구조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뜨거울 수밖에 없다. 국립대라고 변화와 개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각종 대학평가에서 획일적이고 거친 잣대로 질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다. 무엇보다 평가에서 국립대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의 교육여건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특히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인구 63만 섬에 자리잡은 제주대의 현 상황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고, 학생들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제주대는 과거 정부에서 ‘지방분권 촉진’이란 프레임으로 지방거점국립대라는 혜택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인재들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역할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공감하면서 발전해 온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획일화된 평가 잣대는 도세가 약한 제주대로서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국가 예산의 특성화사업이나 학부교육 선도대학, 취업연계 중점대학에서 배제됐다. 지역산업기반이 부족해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한 제주대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에 정부의 배려와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 대학 측의 준비와 대응도 중요하지만, 중앙과 가장 먼 지방에 있다고 해서 우수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수만의 자화자찬식 평가 우려

최근 몇년간 국·공립대의 뜨거운 감자였던 ‘기성회비’가 대학회계로 편입함에 따라 수업료로 일원화됐다. 새로운 회계가 구성되면서 교육부는 교수 및 교직원에게 지급됐던 가지각색의 수당을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제28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까지 우리 대학 교원들은 교육과 연구 등을 진행해 왔을 때 급여보조성 경비의 명목으로 연봉 외 일종의 보너스를 받아왔다. 지난 사례와 더불어 법과 대조했을 때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부터 재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대학 예산이 본격적으로 감시됨에 따라 지도비를 받기 위한 계획 서식이 마련됐다. 해당 교원들은 배부받은 계획서에 자신이 진행한 교육·연구·학생지도에 관한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즉,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타나야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금액이 지급된다. 나름 교육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생들의 등록금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적을 서술하는 평가 과정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향간에서 지속적으로 나온다. 교육과 연구 그리고 학생지도로 분류된 활동 및 실적보고서는 모두 교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물론 논문을 창작하거나 학술활동 실적에 관한 부분은 타인이 확인이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학교헌장실습·답사 또는 학생들과의 MT 참석 여부도 학생지도에 관한 부분에서 평가가 되는데, 이는 자신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거나 모호하다. 또한 학생들의 과제를 피드백과 상담 등도 적지 않은 점수가 부여되는데 이 또한 주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현재 97억 7320만원이 배정돼 있다. 작년보다 무려 10억원이나 상승했다. 교직원 개인이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50만원이다. 백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이에 맞는 강력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도비를 심사하는 위원회는 각 분부, 단과대학 등 사업부서에 설치돼 있지만 공정성과 관련 부문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대학 교직원을 신뢰하는 모습은 보기 좋으나 이를 평가하는 기준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

기자수첩



김해연
취재보도부장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전화, 잘 모르는데 자꾸만 이야기 하지는 선배, 형형색색 잡바를 걸치고 학교를 누비는 학생들. 11월 제주대를 강타할 태풍. 제주대의 선거문화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혹자는 ‘제2의 축제다’라며 학생회 선거 과정을 이렇게 포장하곤 한다. 그들만의 축제를 대학의 축제라 착각한 것은 아닐까? 학생회의 선거문화에 대해서

독자기고

최저임금 5580원의 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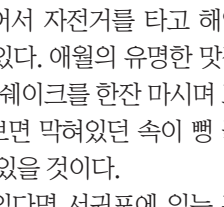
김지은
초등사회과교육전공 3

최근 아르바이트생에게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이 가득 들어있는 병으로 지급한 사건이 SNS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이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사건이지만, 사실 이와 비슷하게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들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봐야 할 경험’쯤으로 여겨진다. 경제적 이유 외에도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사회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가 지나치면, 젊은 청년들이 노동을 착취당하는 것까지 ‘좋은 경험, 해봐야 할 경험’쯤으로 아름답게 포장하는 논리로 변질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단지 ‘좋은 경험’을 해보기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단지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을 고용한 것도 아니다. 법적으로 엄연한 근로자와 사용자다. 일부 사용자들은 이들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버릇이 없다, 열정이 없고 자기밖에 모른다’라며 적반하장격으로 젊은 단시진 근로자들을 비난한다. 흔히 그들의 불평은 이런 말로 시작한다. ‘옛날에는 말이야, 적은 보수 받고도 일거리만 있으면 닥치고 일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편한 것만 찾아.’ 몇 해 전에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많은 독자들의 찬사를 받

으며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른 적이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찬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춘들을 향해 ‘젊을 때니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생마저 감수하게 여기라’는 이 책의 차가운 위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나기도 했다. 종편의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힘들게 돈을 버는 역할을 맡은 연기가자 ‘아프면 한 자지, 무슨 청춘이나’라고 맞받아치는 장면이 사람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말로 청춘은 최저시급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고용주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도 감수하면서, 월급을 제 때 받지 못하고 언제 절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달리며, 사회가 움직이는 밑거름이 되어 우직하게 열심히 일만 해야 하는 존재일까? 이 모든 것은 ‘청춘’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될 수 있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청춘들은 ‘아프고, 남어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갖고 있어야만 청춘답다’라는 차가운 위로에 공감할 만큼의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청춘’들이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때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하나의 경험이자 좋은 추억으로 남았을까? 최저시급 5580원. 그 안에 그들의 고생과 땀방울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아봤으면 한다.

제주에 살면서 제주를 제대로 둘러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 아마 대부분 학업과 일에 치여 제주를 느낄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제주도민이든, 육지에서 온 사람이든 이번 가을을 맞아 한 번 제주여행을 떠나보자. 필자가 방문한 곳 중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몇 곳을 선정해봤다. 우선 제주 시내와 가까운 용담해안도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용담해안도로는 제주 국제공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고, 시내 버스는 7번, 17번이 운행하고 있다. 용담해안도로는 산책코스가 잘 조성되어있기에 친구 또는 연인과 편히 걸으며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용담해안도로는 야경이 특히 아름답기 때문에 일몰 후 방문해도 괜찮다. 바닷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행거 입고 가도록 하자. 해안도로 한 쪽에는 음식점과 카페들이 늘어서 있는데, 이곳에 제주 3대 빙수 중 하나라고 불리는 한라산빙수를 파는 카페 ‘날모리동동’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맛집이 있으니 바다를 감상하며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은 어떨까. 다음은 하귀애월해안도로중 특히 경관이 뛰어난 고내리에 있는 해안도로를 소개하겠다. 시외버스 702번이 운영 중이며 고내리 119번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해 약 12분 걸어야한다. 날씨가 좋은 날 특유의 탁 트인 바다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은 장관이라 할 수 있다. ‘제주환상 자연거길’이라는 자연

어세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총대의 결단이 필요하다. 제주대 총대위원회는 선거를 책임지는 기구다. 이런 총대위원회에서 회칙개정을 통해 제주대의 선거문화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의식 또한 개선돼야 한다. 인맥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후보자들 또한 자신들의 목표인 학우들을 위해 노력한다는 목적을 잊지 말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선거를 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 아닌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의 계발을 위해 다니는 곳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자신들의 당선을 위한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과열을 막기 위해, 제주대의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품격있는 학내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현나
국어국문학과 1

친근한 버스 그리고 편한 자전거와 함께

거 전용도로도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려볼 수 있다. 애월의 유명한 맛집 리치마고에서 망고셰이크를 한잔 마시며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면 막혀있던 속이 뽕뽕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서귀포에 있는 관광지를 방문해보자. 서귀포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도 찾는 관광객들의 입장이 되어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서귀포 제1정사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이중섬거리는 시외버스 720번을 타고 동문로터리 정류장에서 내려 약 6분간 걸어가면 된다. 이곳에서 매주 주말(겨울에는 미운영) 오전 11시~오후 6시에 서귀포 예술시장이 열리는데 이 시기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중섬거리 일대에 장인들이 자리를 잡고 액세서리, 천연염색옷, 수제 펜 등 직접 만든 공예품을 판다. 예술정신이 깃든 물건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느끼고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물건을 장만할 수도 있다. 거리 곳곳에 이중섬의 그림이 그려진 가로등, 하수구, 타일 등이 있어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제주 곳곳에는 항상 우리들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곳이 많다. 너무 학업과 일에 치여 하루를 보낼 것이 아니라 이번 주말엔 모든 것을 내려 놓고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풍경들과 다양한 볼거리가 여러분을 맞이해줄 것이다.



뇌.색.남의 시사용어
스테이크이션



바쁜 일상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스테이크이션이 새로운 휴가 문화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모 카드 회사 광고에서 한 말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집 떠나 먼 개고생’이라는 옛말이 있다. 이 말이 우리의 지금 현실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것일까.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크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스테이크이션(Staycation)은 ‘머물다’라는 의미의 stay와 ‘휴가’를 뜻하는 vacation의 합성어로, 집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신조어다. 스테이크이션은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 이후 생겨난 단어다. 경기침체를 겪으며 지갑을 열지 않고 휴가 기간 집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현상을 나타낸다. 방에 처박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콕’에서 좀 더 진화한 형태다. 한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반짝한 유행어가 아니

라 2009년에 웰스타 사전에 신조어로도 등재됐다. 원래 미국인의 트렌드를 반영한 이 단어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휴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스테이크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시장 조사 기업 마크로밀렘브레인이 19~59세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에 여행이 꼭 필요한가?’를 주제로 설문했다니 2명 중 1명(51.7%)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많은 직장인이 ‘스테이크이션’을 선호한 것이다. 휴가 기간에 그동안 쌓인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느새 달라진 휴가 문화의 단면이다. 기업에서도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스테이크이션족 잡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스테이크이션 열풍은 말뜻 그대로 진정한 휴식을 즐긴다는 점에서 성숙한 휴가 문화라고 볼 수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바로 보여준다. ‘피로 사회’로서의 우리나라의 단면이기도 하다. 휴식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공상하는 게움을 즐기는 게 최상의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스테이크이션’을 즐겨보는 것도 좋지않은 때론 밖으로 나가 새로운 활력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집 밖에서만 느낄 수 있는 힐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부찬우 기자

Get it Healthy

<Get it Beauty>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 각종 미용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에 이 방송을 보며 많은 시행착오로 자신만의 뷰티법을 찾는다. 나만의 뷰티법을 찾았으나 아름다운 몸매를 얻기란 결코 쉽지 않다. 여름방학을 맞아 계획을 세웠던 다이어트는 어디로 갔는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 우리에게 평생 과제인 다이어트!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이다. 어떤 노력을 해야 아름답고 건강한 몸매를 가질 수 있을까?

<편집자 주>

◇살, 왜 찌는 거니?

제주대학교 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자신의 체중이 △비만 △과체중이라 생각한 사람은 무려 52%이른다. 반 이상이 자신의 체중을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고 생각했다.

비만은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로, 대한비만학회조사에 따르면 남녀 모두 체지방이 30% 이상일 때 비만판정을 받는다. 비만은 외관상으로도 뚱뚱해 보일 뿐 만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심장병 △관절염 △전립선암 △담석증 등 각종 합병증을 유발해 건강에 적신호를 일으킨다. 또한 우울증과 자기비하 등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는다. 20대 비만의 위험성을 강조한 이윤경(식품영양학과)교수는 “20대 때 식습관은 50대 때 각종 합병증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며 “지금부터 생활습관을 바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어트는 보통 과체중 때 시작해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키우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빨리 살을 빼기 위해 무작정 연예인 다이어트를 따라하며 요요현상을 부르기도 하고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거나 무리한 다이어트 등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이 안 좋아 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비만의 원인이 무엇이고 건강과 미를 모두 갖기 위해서는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하나

아침식사는 뇌에게 아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아침에 먹는 음식들은 신체에 중요한 영양공급원이 되며 점심과 저녁식사에 영향을 줘 하루 신체리듬을 결정한다. 설문조사 결과 중 △아침을 챙겨먹지 않는 사람은 40%로 가장 많았고 △매일 챙겨먹는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이윤경 교수는 “아침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위·장과 같은 소화기능이 둔해지게 돼 오히려 비만이 되기 쉬운 체형이 된다”며 “아침을 굶으면 부

건강한 아름다움을 얻어라

아침밥 건강에 좋아... 하루 세끼 챙겨 대사랑 늘려야

족한 에너지를 채우고자 ‘뇌의 보상 시스템’이 작동해 점심과 저녁에 기쁨지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찾는다”고 했다. 바쁜 아침에 밥을 챙겨 먹기 힘들지만 가볍게 과일, 달걀, 채소 등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비만예방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빼기 위해 식사를 거르는 다이어트를 시도한다.

조사결과 학생들은 살을 빼기 위해 △1일 1식 다이어트(17.5%)△굶어서 빼는 방법(17.5%)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를 한번 거를 때마다 기초대사량은 11%감

하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확률은 적다. 하루 세끼 모두 챙겨먹고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다.

◇매일 24시 편의점을 이용하는 학생들

대학생의 식습관은 잦은 외식이 특징이다. 특히 외식은 질보다 양을 많이 늘려 달고 짠 음식을 자극적으로 조리한다. 외식이 잦아지면 나트륨과 지방섭취가 늘고 단백질 섭취는 부족해진다. 이윤경 교수는 “학생들이 살이 찌는 대표적인 이유는 24시 편의점 때문인 것 같다”며 “특히 접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많아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식단조절은 필수이다. 외식보다는 학교급식을 이용하거나 단백질과 섬유질 위주의 도시락을 챙겨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운동은 필수

설문결과 다이어트를 시도한 사람은 69%며 그 중 성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실패했던 사람들 중 대부분 굶는 다이어트로 이를 오랫동안 참지 못해 다시 먹다보니 요요가 왔다. 성공했던 사람 대부분은 식단조절과 꾸준히 운동을 했다.

대학생들 대부분은 운동량이 부족하다. 학창시절 때부터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습관이 돼 신체활동이 적을 뿐더러 운동할 여유가 없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운동을 해야 한다. 시간이 없어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부터 걷는 양을 늘리는 것도 좋다. 순환버스보다는 걸어가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이용하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빨리 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 끼니를 거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빠질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식욕이 상승돼 요요현상이 온다. 그러므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침을 챙기며 △굶는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교수는 “우리 몸은 Set point이론으로 자신의 몸에 맞는 체중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세끼 모두 챙기며 밥을 2/3으로 줄이고 식단조절과 함께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양한(식품영양학과)교수는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며 “우리가 먹는 음식은 20분이 지나야 소화가 되므로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으로 포만감을 줘 식욕을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심소연 기자

‘탑게이’ 홍석천, 그가 왔다!



◇독특함을 가져라

여러분들은 독특함을 가져야 한다. 나중에 취업을 할 때 독특해야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 면접을 볼 때 당당히 서서 “심사위원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심사위원분들께 영양제와 같은 역할을 하려고 왔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리 옆에 명문대생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을 무조건 뽑을 거다. 그러니 절대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독특함을 선보여라.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지금 내가 이태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한지 어느덧 십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7년쯤 되던 해에 건물주에게 쫓겨나게 됐다. 내가 처음 레스토랑을 시작했을 때, 그곳은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았던 곳이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그 동네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핫한 곳으로 기껏 일궈놓으니 세를 더 내놓으라며 그렇지 않을거면 나가라고 날 쫓아냈다. 당시 이것이 세입자의 설움이나니 깨달았다. 기분은 나쁘지만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해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나 애인 있어요

내가 지금 애인이 있을 것 같나요? 네, 애인 있어요(수줍). 나도 눈이 있어서 잘 생긴 사람을 좋아한다. 지금 그 친구는 매우 잘 생겼다.

애인을 삼을 때 몇 가지 조건을 고려한다. 첫 번째 조건은 나를 연예인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나를 편하게 대해 주는 사람이 좋다. 그래야 나도 그 사람을 편하게 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게이인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도 그에 대한 시선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내 애인은 정말 잘해주고 있다.

김이래 기자



지난 16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홍석천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은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5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예산

1. 세입 예산 과목별

관	항	목	예산액
세입 예산 합계			57,063,16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전입금			1,837,824
국가 전입금			110,000
그 밖의 국가지원금			110,000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와 국가지원금			110,000
지방자치단체전입금			1,727,824
지방자치단체채권			1,727,824
공역자치단체지원금			1,485,544
지방자치단체지원금			242,280
2. 자체수입금			55,225,345
교육활동수입			47,246,782
입학금			436,124
대학생입학금			336,276
대학원생입학금			99,848
수업료			45,980,299
대학생 수업료			36,191,317
대학원생 수업료			9,788,982
계절학기수강료			396,000
계절학기수강료와그 밖의 납부금			396,000
최고경영자과정수강료			434,359
최고경영자과정수강료와그 밖의 납부금			434,359
평생교육기관등의 수업료			2,018,422
수강료			2,018,422
평생교육기관등 수강료			2,018,422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676,870
사용료			201,000
토지 이용료 수입			10,000
건물 이용료 수입			180,000
건축기재이용료 수입			11,000
수수료			7,500
각종 제 증명 수수료			7,500
기숙사 사용료			2,468,370
학생기숙사사용료			2,468,370
다른 회계로 부타입전입금			1,408,652
산단회계전입금			868,652
산단회계전입금			868,652
발전기금회계전입금			540,000
발전기금회계전입금			540,000
이자수입			203,000
이자수입			203,000
예금 등 이자수입			203,000

관	항	목	예산액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등 수입			1,000
도 서 매각대금			1,000
자본형성적도서 매각 수입(교내출판부 등)			1,000
그 밖의 수입			1,670,619
그 밖의 지원금			1,012,894
민간기탁 등 지원금			1,012,894
참수입			657,725
다른 항목에 속하지 않는 세입			657,725

2. 세출 예산 과목별

관	항	목	세목	세출예산
세출예산 합계				57,063,169
인적경비				18,712,256
인건비				14,767,974
공무원인건비				8,118,178
봉급				8,107,178
정액수당				6,000
대학회계직원등인건비				6,514,710
대학회계직원보수				1,879,983
대학회계직원수당				921,462
그 밖의 계약직원보수				3,073,979
그 밖의 계약직원수당				639,296
일용임금				140,086
일용임금				140,086
복리후생비				390,589
퇴직급여				168,756
대학회계직원 퇴직급여				15,897
그 밖의 계약직 등 퇴직급여				152,859
복리후생비				221,833
피복비				24,540
복근매선비				48,022
맞춤형복비				70,244
공상지급비				700
포상금 등				78,327
실비면상 인적경비				538,320
직무수행경비				24,000
직급보조금				7,200
교수보좌수행경비				16,800
그 밖의 실비면상 인적경비				514,320
회의 및 위원회 수당				133,700

관	항	목	세목	세출예산
특강강사료				380,620
강의료				2,175,868
강의료				2,175,868
전문강사강의료				716,400
비전문강사강의료				214,200
전임교원초과강의료				350,000
비전임교원강의료				91,800
계절학기강의료				249,888
그 밖의 강의료				564,480
법정고용부담금				839,505
부담금				839,505
국민연금부담금				428,782
건강보험 부담금				199,436
고용보험 부담금				136,342
산재보험 부담금				73,313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632
세출예산 합계				57,063,169
교육연구장비				18,570,744
장학금				6,241,432
장학금				6,241,432
성적 및 생활장학금				3,946,742
근로 장학금				1,740,890
학생조교 장학금				170,000
국외유학장학금				145,000
그 밖의 장학금				24,400
외국인 장학금				214,400
교육연구및 학생지도비용 등				10,850,919
교육연구및 학생지도비용				9,460,878
교육연구및 학생지도비용				9,460,878
연구지원대용사업비				1,390,041
연구지원 대용사업비				1,390,041
학생활동지원비				1,478,393
학생활동지원비				1,478,393
학생활동지원비				1,478,393
학생 교육 및 취업 활동 등 지원 경비				1,478,393
운영비				16,454,630
학교운영비				16,454,630
일반수용비				2,171,576
소모품비				1,057,099
도서인쇄비				482,631
광고선전비				120,249
지급수수료 등				511,597

관	항	목	세목	세출예산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3,600,002
수도광열비				2,414,887
통신비				358,829
세금				4,760
각종부담금				821,526
차량/선박비행기유지비				56,240
차량 유지비				43,240
선박 유지비				13,000
지급보험료				75,400
계약에 따른 각종 보험료				75,400
지급임차료				308,453
건물임차료				110,23
차량임차료				60,210
장비임차료				1,460
그 밖의 임차료				136,070
수선유지비				772,235
건물수선유지비				144,016
구축물수선유지비				140,555
기계장치 수선유지비				258,853
집기비품 수선유지비				104,878
그 밖의 수선유지비				114,933
급원비				11,635
주식비, 부속비				11,635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				475,486
학술대회 등 학교주관 행사경비				475,486
재원비				1,744,335
교육연구재료비				676,405
제품생산재료비				1,067,930
용역비				4,732,877
시설장비관리용역비				43,038
청사관리용역비				3,416,741
전산운영용역비				643,572
물품관리용역비				9,000
교육용역비				24,970
급식용역비				132,000
BTL 용역비				50,000
그 밖의 용역비				413,556
과 운영비				51,180
일반 업무 추진에 드는 그 밖의 경비				51,180
여비교통비				1,844,844
국내여비				947,319

관	항	목	세목	세출예산
국외여비				243,525
국내여행비				4,000
업무추진				967,567
회의비				613,926
행사경비				348,641
국외출장 지원비				5,000
연구개발비				201,000
연구용역비				116,000
전산개발비				85,000
보전금				26,430
법령에 의한 민간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				1,680
포상금				24,750
그 밖의 운영비				65,370
기타운영비				65,370
자산취득비				3,145,647
건설투자				1,388,002
건설투자				1,388,002
설계비				30,000
시설비				1,358,002
자산취득비				1,757,645
유형자산 취득비				1,327,390
기계장치/통신기구				35,270
실험실설비/기재				493,405
도서				447,179
사무용기기				273,226
사무용품기				47,770
전산장비				30,540
무형자산 취득비				430,255
교육소프트웨어				430,255
예비비 및 그 밖의 비용				178,892
예비비 및 그 밖의 비용				178,892
예비비				50,000
예비비				50,000
반환금				129,892
과오납				70,302
그 밖의 반환금				59,590

제주대학교 총장